

이번 호 일일 벤처 체험에는 좋은만남 선우의 커플매니저 최윤정 팀장의 귀여운 두 딸, 이에니·이에은 양이 참여해주었습니다.

벤처의 천·생·연·분 반갑다, 선우야!

꽃샘추위가 반짝 심술을 부리던 3월의 어느 날, 화사한 봄의 기운을 거느린 귀여운 두 꼬마속녀 이에니(16)·이에은(12) 양이 하모닝매칭시스템(HMS)의 상용화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선우를 방문했다. 미모의 커플매니저로 8년째 선남선녀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는 엄마 최윤정 팀장의 일터를 찾은 그들의 눈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하다.





세 개의 문

☉☉ “우와~ 비로 갈아,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

신사동에 위치한 선우의 강남본사에는 세 개의 문이 있다. 그 첫 번째 문이 바로 ‘Love & Life Coordinator’ 라는 가치를 내건 좋은만남 선우다. 하모니매칭시스템 개발로 본사와 지사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선우는 지난해부터 중앙컴퓨터를 본사 삼아 커플매니저 중심의 ‘1인 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에 부응해 선우의 사무실은 규모 면에서는 거품을 빼는 대신 각 지역마다 지사를 두어 그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다.

회원의 가입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상담실, 소개가 힘든 회원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는 회의실, 작지만 갖가지 업무가 재빠르게 이루어지는 아담한 사무실로 구성된 선우의 강남 본사는 효율적인 공간

배분이 인상적이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절묘하게 엇갈리게 배치해 고객 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상담실의 구조가 그렇고 선우의 서비스를 완성하는 뭉칫지와 투어닷컴이 공존하는 공간의 쓰임에서도 고객의 편의를 생각하는 선우의 배려를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문 안으로 들어가면 결혼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 시혼여행을 도와주시는분들이 있고요.”

이렇듯 세 개의 문 중에서 뭉칫지 로 가는 문 안쪽에는 인문지대사인 웨딩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딩팀이, 투어닷컴으로 가는 세 번째 문 안쪽에는 국내외 맞춤형 여행 정보를 안내하는 여행팀이 자리해 민남에서 하니문까지 선우만의 호텔 웨딩 서비스를 완성한다.



술석 잔혹은 뺨 석대, 커플매니저의 하루

● ● “우와~ 비로 같아.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

신사동에 위치한 선우의 강남본사에는 세 개의 문이 있다. 그 첫 번째 문이 바로 ‘Love & Life Coordinator’라는 기치를 내건 좋은반남 선우다. 히모니매칭시스템 개발로 본사와 지사의 구분어무의비해진 선우는 지난해부터 중앙컴퓨터를 본사 삼아 커플매니저 중심의 1인 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에 부응해 선우의 사무실은 규모 면에서는 거품을 빼는 대신 각 지역마다 지사를 두어 그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다.

회원의 가입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상담실, 소개가 힘든 회원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는 회의실, 작지만 갖가지 업무가 재빠르게 이루어지는 아담한 사무실로 구성된 선우의 강남 본사는 효율적인 공간

배분이 인상적이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절묘하게 엇갈리게 배치해 고객 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상담실의 구조가 그렇고 선우의 서비스를 완성하는 ‘몽각지’와 ‘투어넛컴’이 공존하는 공간의 쓰임에서도 고객의 편의를 생각하는 선우의 배려를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문 안으로 들어가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 신혼여행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있고요.”

이렇듯 세 개의 문 중에서 ‘몽각지’로 가는 문 안쪽에는 인문지대사인 웨딩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딩팀이, ‘투어넛컴’으로 가는 세 번째 문 안쪽에는 국내외 맞춤 여행 정보를 안내하는 여행팀이 자리해 만남에서 하니문까지 선우만의 토털 웨딩 서비스를 완성한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벤처, 선우

●● 선우의 일과는 다른 회사보다 30분 일찍 시작한다. 밤사이 휴 페이지에 올려진 회원들의 고민이며 궁금증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고, 고객들이 보낸 이메일에도 일일이 답장하다 보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오전시간이 지나가기 일쑤다.

“커피매니저란 직업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매일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라 적성이 맞지 않으면 말 못할 고충이 큼니다. 개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서로에게 맞는 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만하죠.”

선우에서도 최고의 고객만 상대한다는 노블레스틴의 최윤정 팀장은 8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본인은 연애결혼을 했지만 그녀가 이어준 공식 중매커플 수만 해도 750여 커플이 넘는다.

사람마다 이상형이 다르고 원하는 조건도 다르다 보니, 이들 사이의 간극을 매우는 것이 그녀의 역할. 특히 부모가 결혼에 무관심한 자녀를 대신해 몰래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선우의 거짓말을 위해 흘린 식은땀만해도 농가의 기쁨을 해소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이해!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전화한 사람과 통화하면서 상냥을 해주느라 거꾸나!”

예은이의 신난 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보통 선우의 커피매니저는 두 고객을 오가는 몇 번의 통화 끝에 하루 평균 7~8건 정도의 만남을 주선한다. 기본적인 선호에 대한 매칭작업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주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상대를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 맞선 후의 불평이나 다독임까지 모두 커피매니저의 몫인 것이다.